



디지털화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산업 변화

이아름 연구원

연구

미국 건강보험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슈어테크(InsurTech) 등장,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따라 헬스케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 행정비용과 의료비용은 절감되는 반면,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생태계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디지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건강보험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슈어테크(InsurTech) 등장,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따라 헬스케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¹⁾
 - 미국 헬스케어 지출은 GDP의 18%²⁾를 차지하지만, 전반적으로 타 산업 대비 디지털 개혁 수용이 느린 편이었음
 - 2015년 Mckinsey 미국 산업별 디지털화 인덱스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하위권에 머무름³⁾
 - 반면, 브로커, 보험회사, 헬스케어 제공자 등 건강보험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회사들의 등장으로 헬스케어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 건강보험산업 중 헬스케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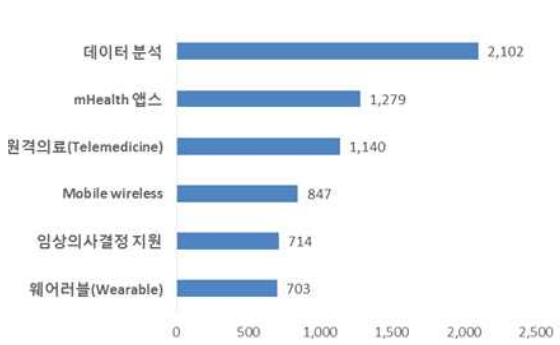
1) Mckinsey(2018), "Digital is reshaping US health insurance - winners are moving fast"
 2)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미국 헬스케어 지출은 2009년 이후로 GDP의 17%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2016년 이후 18%를 기록함. 또한, 미국 헬스케어 지출은 2017년 기준 1인당 1만 633달러이며, 향후 2021년까지 연간 3% 증가하여 1만 1,98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디지털 자산(8개 지표), 디지털 사용(11개 지표), 디지털 노동(8개 지표) 등 총 27개 지표를 사용하여 산업별 디지털화를 측정함. 산업별 디지털화는 미디어, 전문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도매업, 개인 및 지역서비스, 정부, 교통 및 창고업,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레이션 순으로 높았음

-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투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미국의 디지털 자산 투자는 약 70억 달러를 기록함
 - 2018년 미국의 디지털 자산 투자는 세계 1위를 기록하며, 2011년 이후로 연평균 32%씩 증가함
 - 2018년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투자의 경우 투자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건당 투자액이 증가함
- 2018년 분야별로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투자액을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1〉 전 세계 헬스케어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추이



〈그림 2〉 2018년 분야별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투자액



주: 빨간색은 미국 디지털 자산 투자금액을 나타냄
 자료: Mercom Capital; statista(2019)

주: 백만 달러
 자료: Mercom Capital; statista(2019)

- 2018년 미국의 디지털 자산 투자는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여러건 체결됨
 - 5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Peloton에 이어, 23andMe, American Well, Butterfly 등 11개 회사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함

〈표 1〉 2018년 미국의 디지털 자산 투자액 규모 상위 11개 회사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투자 금액	본사
Peloton	550	뉴욕
23andMe	300	캘리포니아
American Well	291	매사추세츠
Butterfly	250	코네티컷
HeartFlow	240	캘리포니아
Helix	200	캘리포니아
WuXi NextCODE	200	매사추세츠
Outset	132	캘리포니아
TEMPUS	110	일리노이
Collective Health	110	캘리포니아
Livongo	105	캘리포니아

자료: Rock Health(<https://rockhealth.com/>)

■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비용과 의료비용은 절감되는 반면,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 디지털화에 따라 헬스케어 행정 비용은 1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결제, 언더라이팅 자동화, 디지털 보험 가입 등으로 보험 소비자는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이 없는(Paperless)' 의사소통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물리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과거에 접근하지 못하였던 정보 확보가 가능해지고,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함에 따라 의료비용은 35%~40%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행정 및 의료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은 20%~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kiri**

4) Mckinsey(2018), "Digital is reshaping US health insurance- winners are moving fast"